

외국의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비교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이스라엘 사례 중심으로

이 신 동
순천향대학교

이 경 숙
순천향대학교

본 연구는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정의 영재 대상 한국형 헤드 스타트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외국의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비교분석을 통해 개발될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이스라엘의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14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목적, 선발 대상 및 방법, 내용, 효과에 따라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격차를 좁히기 위해 조기 선발을 하며 중재반응(RTI)모형의 다층식(Tiered) 프로그램을 중재 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 둘째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안에서 확대된 학교 심화형태로 제공하여 영재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추구한다. 셋째 소외계층 영재는 다면적, 역동적 평가를 통한 강점 중심의 선발 방식을 사용한다. 넷째 일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소외계층 영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며, 가교 역할을 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다. 다섯째 인지능력 발달 외에 사회·정서적 발달 프로그램과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부모교육, 멘토링 등을 포함한다. 여섯째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며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구축한다.

주제어: 소외계층 영재, 다문화 영재, 교육 격차, RTI 모형, 부모 교육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영재교육진흥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영재교육은 학생, 기관, 교원 등의 수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수학·과학 영역에만 치우친 영역 제한성, 교육기관 연계성 부족, 지역 편차 및 계층 대비 영재교육대상자 비율의 불균형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제적 소외계층 학생의 경우 2008년 통계에 의하면, 국민기초 및 차상위 계층 초·중등

교신저자: 이경숙(klee@sch.ac.kr)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14S1A5B8063441)이며 순천향대학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임.

학생 비율은 빈곤층은 7.8%, 차상위 계층은 4.2%로 전체 학생의 약 11% 학생이 경제적 소외계층가정에 속한다. 2014년 국민기초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중 2,146명이 영재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전체 영재교육 대상자의 1.81%로, 계층별로 하면 약 10% 이상의 학생이 소외 계층에서 선발되어야 하지만, 적게 선발되고 있다.

2014년 다문화 학생은 67,806명으로 전체 학생 6,333,617명 중 1.07%를 차지하며(여성가족부, 2014), 다문화 초·중학생은 50,822명이다. 초·중학교급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다문화 학생은 136명으로(한국교육개발원, 2015),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 117,949명의 0.11%에 해당한다. 사회계층, 성, 인종의 차이 없이 모든 영재는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전제할 때(Gross, 1999),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서 경제적 소외계층 학생이나 다문화 학생이 인구 비율 대비 과소 대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재교육진흥법에서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를 영재교육기관장이 별도의 선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08~2012)에서는 저소득층 자녀 등 소외계층 학생의 영재교육 기회제공을 위한 법적 마련을 계획하였고(교육인적자원부, 2007),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에서는 소외계층 영재를 지리적 요인에 의한 도서·벽지·농어촌에 사는 영재,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저소득층 영재,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한 다문화, 북한이탈 영재, 신체적 요인에 의한 장애 영재 등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지원 선발 도구 개발 및 프로그램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교육부, 2013). 하지만 소외계층 학생의 영재교육 선발 비율은 일반 학생에 비해 많이 낮아, 이들의 영재성이 저평가되어 고등 우수 교육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이재분외, 2011). 학문적 연구주제에서는 소외계층 학생의 경우 영재보다는 오히려 학습 지체, 학습 부진, 사회·정서적 문제 행동 등이 중심이 되어 연구되고 있다. 교사들도 이들에게는 영재성은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 소외계층 학생은 가진 강점보다는 결함, 문제 행동, 약점이 부각되고 있다(Harradine, Coleman, & Winn, 2015).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이들이 가진 영재성보다는 언어발달 지체, 학습 부진, 학습 지체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강점보다는 약점이 강조되고 있다.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이 선발되는 비율이 높고, 소외계층 학생 수가 적은 현상이 지속될 때 영재가 가진 잠재능력의 최대 발현을 위한 영재교육의 형평한 기회 제공이라는 영재교육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다. 계층 간 기회 불균등을 제거하며, 수월성 교육의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개인이 가진 잠재능력 이외에 가정이나 환경 같은 영향을 최소화하는 영재선발과 가정 환경차이로 유아 시절부터 발생하는 인지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으로서의 소외계층 조기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 이미 개발된 외국의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고찰하고 그 특징들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의 소외계층 영재 연구는 경제적 취약계층 영재와 다문화 영재를 한 시각에서 함께 연구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 배경의 가정이 경제적 취약계층과 겹치며, 문화적으로도 다문화 가정이나 경제적 취약계층이 중상류 주류문화와 이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학생들

이 학교에서 중심이 아닌 주변인으로 머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국의 경제적 취약계층과 다문화 가정의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 중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영재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집 분석하여 비교하고 한국형 소외계층 영재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가이드라인과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외국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

1. 미국

미국은 텔런트 법령에서 소외계층 영재에 대한 연구, 보급, 정책 개선을 요구하면서 빈부 및 인종간의 영재교육 수혜비용 차이를 해결하고 소외계층 영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NAGC, 2014). 미국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의 반 이상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위 25%에서 속하며, 하위 25%에 속한 학생 중 9%만 영재교육을 받고 있다(Borland, 2004). 또 저소득층 중 무료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과 아닌 학생 간의 영재교육에 선발된 비율이 전체에서 각각 1%와 11.4%로 조사되어(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2014), 저소득층 안에서도 경제적 배경에 따라 영재 프로그램 선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989년에서 1994년 5년 동안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75개의 연구가 진행되어(Ford & Harris, 1996), 소외계층 유형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중단되었다가 2014년에 다시 재개된 Javits에서 선정한 10개의 영재교육 프로젝트 중 6개가 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정 영재 선발 및 프로그램이며, 2015년에 신청 받은 과제 대부분도 소외계층 영재가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본 연구에서는 2012년 NAGC가 뽑은 우수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과 한국교육개발원 소외계층 영재학생 발굴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그램 중 유·아동 대상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가. Young Scholar

2001년부터 미국 버지니아주 웨어텍스 카운티의 타이틀 1 학교¹⁾(FCPS)에서 사용되는 학교 중심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의 경험을 제공한다. Renzulli의 학교전체 심화모형과 Treffinger의 서비스 차별화 단계를 이론적 모형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 82개 학교에서 6,400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Olszewski-Kubilius & Clarenbach, 2012).

1) 목적

전통적 방법으로는 영재선발에 과소 대표되는 빈곤층, 비영아권, 장애 학생 중 영재학생을 조기에 선발하여 도전적이고 속진의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의 잠재능력을 육성하며 인종 간의 학업성적 격차를 좁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타이틀 1 학교: 무료급식 수혜 학생 등 저소득 계층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2) 선발 대상 및 방법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관찰, 생활기록부, 학생 작품, Beverly Shaklee의 영재행동평정척도, Naglieri 비언어 능력검사 등을 바탕으로 선발한다. 1수준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영재 프로그램으로 이 수업에서 학생이 보이는 잠재능력을 교사가 관찰하여 상위 수준의 대상자를 추천한다(Horn, 2015).

3) 프로그램 내용

4개의 다층적 수준으로 되어 있으며, 1수준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만 제공되며 소의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을 일반교사가 관찰하여 2수준으로 추천한다. 2수준은 Young Scholar로 선발된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 진행 속에서 일반 교사가 도전적 내용을 제공하며 3수준은 영재교사와 일반 교사가 함께 협력하며 고차원적 사고와 심화내용을 가진 차별화 교육과정과 속진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Project M³ Mentoring Mathematical Minds에서 사용하는 유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한다. 4수준은 비판적, 창의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능력을 강조하며 영재학생의 특성과 수준을 반영한 깊이, 속도, 내용을 제공하여 일반 영재교육 프로그램 수준을 제공한다. 중학생 대상으로 AP와 IB를 운영하여 속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Antoniades, 2014). 여름 캠프와 부모교육을 제공하며, CaseNEX라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른 지역에서도 Young Scholar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효과

유치원부터 실시함으로 조기 중재가 가능하며, 선발 중심보다는 우수 영재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안에서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여 정규교육과정의 질 향상과 많은 학생들이 잠재능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영재 프로그램에 들어온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 수를 2003년과 비교할 때 2014년에 흑인과 히스패닉 영재교육 수혜자수가 563% 증가되었다(Horn, 2015).

나. Project M² Mentoring Young Mathematics

1) 목적

미국과학협회가 지원하며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실시된 프로젝트이다.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문제 해결력과 의사소통 능력 육성, 도형과 측정 등에 대한 학생의 이해 증진, 모든 학생의 수학 성적 향상과 실생활 속에서의 수학경험 지원, 소외계층 학생 중 수학영재 발굴을 목적으로 한다(UCONN, 2015).

2) 선발 대상 및 방법

커네티컷 주, 켄터키 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텍사스 주의 11개 학교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별도의 선발과정 없이 정규수업시간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3) 프로그램 내용

Renzulli의 다중매뉴모형과 Tomlinson의 병행교육과정을 기초로 M. K. Gavin, T. M. Casa, S. H. Chapin, L. J. Sheffield가 도형과 측정을 내용으로 각 학년에 2개씩 총 6개의 단원을 개발하였다.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나 실생활과 연계된 문제를 통한 문제 해결력 향상, 연구능력 경험(Kendall Hunt Publishing Company, 2015), 그리고 토론을 통한 수학개념 구성 등 개별화되고 차별화된 교육과정이다(Gavin & Casa, 2012).

4) 효과

참여 학생들이 주관식 문제에서 높은 성적을 보였으며, 도형과 측정영역에 대한 내용과 과정에 대한 학생 이해도, 수학적 개념을 글과 말로 표현하는 능력에서 향상과 참여했던 소외계층 영재학생의 인지적 필요를 충족시킴으로 수학 능력이 촉진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Gavin & Casa, 2012; Gavin, Casa, Firmender, & Carroll, 2013; Olszewski-Kubilius & Clarenbach, 2012).

다. Project SYNERGY

콜롬비아 대학의 Leta Hollingworth센터 및 Borland와 Wright 교수(1994)가 중심되어 1991년에서 1997년까지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뉴욕 센트럴 할렘에 있는 미취학 연령 흑인 유아를 대상으로 IQ나 학업 성취가 아닌 다른 비전통적 선발 방법을 통해 영재를 선발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 목적

경제적 취약계층 중 유치원 연령의 영재를 발굴하여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정규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이 학생들이 이동하여 배치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히 부유한 중류층 이상의 영재학생을 따라잡기가 아닌 사회나 학교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 과소평가되었던 소외계층 영재의 잠재능력 계발을 목표로 한다(Borland, 2004).

2) 선발 대상 및 방법

Borland와 Wright(1994)가 개발한 3단계 전형은 1단계와 2단계에서는 표준화 검사인 전통검사와 함께, 역동적 평가, 수행 평가 등 비전통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3단계에서는 학생별 사례 분석을 통하여 선발하여 프로그램에 배치하였다. 검사 점수의 평균이나 합산 점수 대신 검사별 학생의 최고 점수를 사용하며 체크리스트 대신 교사의 주관적 서술 추천을 중시하였다.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에 입각하여, 학생이 현재 능력보다 주위의 도움 제공시 새로운 것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정도를 관찰하여 강점중심으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였다(Borland, 2004).

3) 프로그램 내용

본 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 나중에 일반 영재 프로그램에 배치되는 것이 목적임으로 소외계층 영재들이 부족하기 쉬운 읽기, 쓰기, 수학 등의 기초 지식과 기술을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태도, 문화 활동, 사고력 프로그램, 상위인지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이재분외, 2011). 빈곤층 중학생 중에서 멘토를 선발하여 소외계층 저학년 학생들을 돕는 멘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4) 효과

빈곤층 유치원 학생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영재교육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비전통적인 선발 방법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선발될 수 없었던 학생들이 선발되어 교육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판별 방법에 고비용과 노력과 시간을 많이 사용되는 한계점이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4명 중 12명의 학생이 일반 영재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였으며, 학생들의 학교 성적이 상위권에 속한 결과가 보고되었다(Olszweski-Kubilius, Lee, Ngoi, & Ngoi, 2004).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 유치원 아동은 사회성과 사회·인지적인 기술을 배우며, 자존감이 향상되었고, 멘토 청소년도 협동력, 사회능력, 의사소통능력, 리더십 능력이 향상되었다(Manning, 2005; Olszweski-Kubilius, 2010). 그리고 일반 교실에서 모든 학생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영재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일반 유치원 교육과정의 수준 향상을 가져왔다.

라. Project START (Support to Affirm Rising Talent)

Project START는 버지니아 주립 대학의 Callahan, Tomlinson, Moon, Tomchin, Plucker와 북 캐롤라이나 주의 샬럿에 맥캔버그 교육청의 공립학교들이 1992년부터 3년 동안 공동 연구한 프로그램이다. 샬럿에 맥캔버그 교육청 지역에 있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무료 급식자, 감액 급식자 및 소수 인종 학생 중 영재학생을 선발하여 증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 목적

다중지능이론에 입각하여 경제적 취약계층과 소수민족 영재를 선발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선발 방법을 개발하고, 개발된 증대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소외계층 영재의 정규 영재교육과정 배치를 목적으로 하였다(Callahan, Tomlinson, Moon, Tomchin, & Plucker, 1995).

2) 선발대상 및 방법

유치원부터 초3 학년까지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다중지능평가 기술, 언어·논리·수학·공간지능·대인관계능력 체크리스트, 아이오아 기초능력검사(ITBS), 13개 활동으로 구성된 수행과제 평가를 통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3) 프로그램 내용

다중지능이론을 바탕으로 국제 교육과 다문화 교육과정을 내용으로 하며, 학습자의 필요에 따른 차별화 교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에게 필요한 개념과 추상적 사고, 언어 능력을 강조하며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문화, 언어와 연계되어, 학생의 삶과 상호작용하도록 하였다. 국제 교육은 세계 전체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이해를, 다문화 교육은 문화 간의 사회,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이슈에 대한 탐구를 내용으로 하며(Callahan, Tomlinson, Moon, Tomchin, & Plucker, 1995), 다문화 교육을 통해 문화에 대한 열린 태도,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가족 교육 프로그램과 멘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4) 효과

소외계층 학생의 감추어진 강점이나 재능을 학생 중심적 학습 환경과 다중지능이론 관점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으며(Callahan, Tomlinson, Moon, Tomchin, & Plucker, 1995) 이를 통해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있었다(김미숙외, 2009). 이러한 교사나 부모의 태도 변화는 학생들의 자아 개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어졌다(Moon & Callahan, 2001).

마. DISCOVER(Discovering Intellectual Strengths and Capabilities with Observing Varied Ethnic Response)

1) 목적

1987년 아리조나 대학의 J. Maker, J. Roger, A. B. Nielson이 영재교육에서 특정계층이나 인종의 과소대표 문제를 해결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선발 도구를 활용한 수업을 통해 소외계층 영재를 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2) 선발 대상 및 방법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한 언어, 논리-수학, 공간 영역에서 5단계 수준으로 개발된 문항을 사용하여 영재를 선발한다. 각 단계는 문제의 명확성과 개방성, 해결 방법의 명확성과 개방성, 정답의 명확성과 개방성에 따라 차별화 된다. 1단계 문항은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문제, 해결방법, 정답이 명확하지만, 단계가 진행이 될수록 문제는 개방적이며 해결 방법이나 정답도 정해져 있지 않은 개방형으로 진화한다(Sarouphim, 1999). 훈련받은 3명의 채점자가 학생이 문항을 푸는 과정을 관찰·기록하여 평정하며, 3명의 채점자가 학생이 강점을 보이는 영역을 표시한다. 인종과 문화에 따라 다른 지능영역에서 강점을 보임으로 다중지능에서 언어지능, 논리-수리 지능, 공간 지능과 함께 개인내적 지능, 대인관계 지능 등을 관찰을 통해 평가한다.

3) 프로그램 내용

다중지능이론에 기초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강점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 참여를 강

조한다. 주제에 따른 다중지능영역에서 5단계 문제 유형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선택하여 풀도록 한다. 암기가 아닌 실제 문제를 학생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며, 선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형성해 나가도록 한다. 집단 활동을 제공하며, 미술과 무용, 연극 등 시각적 예술과 지식을 융합하여 배우며,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여 표현하도록 하여, 간학문적인 내용과 소외영재의 강점(예: 다문화의 경우 언어, 문화 등)과 연계된 내용을 수업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Maker, 2005).

4) 효과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생수행 능력평가 방법으로 전통적 영재선발방법에서는 선발되지 못하던 소외계층 학생의 선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에 따라 영재 교육내용, 방법 등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Sarouphim, 1999). 강점과 학생 주도적 DISCOVER 영재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정에 사용했을 때, 일반 학생도 학습, 문제 해결능력, 창의성이 향상되었다(Marker et al., 2006; Wallace & Maker, 2009).

바. Project EXCITE

1) 목적

노스웨스턴 대학 재능발달센터가 시카고 근교 학교의 흑인이나 멕시코계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에서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을 선발하여, 백인과 소외계층 영재간의 학업성취 격차를 좁히고, 기존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였다. 200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 선발된 학생에게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6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Olszewski-Kubilius, 2010).

2) 선발 방법

공부습관, 성취, 능력, 흥미에 대한 학교 추천서, 학부모 추천서, 전통적인 성취도 검사(아이오와 기초능력 검사, 일리노이 학업성취도 검사), Naglieri 비언어 능력 검사(NNAT)를 사용하여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김미숙외, 2009).

3) 프로그램 내용

방과후, 토요일과 방학 기간 동안 수학, 과학 심화 수업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해까지 6년 동안 총 400시간의 교육을 제공한다.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과 노스웨스턴 대학 재능발달센터에서 운영하는 일반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되며, 소외계층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일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진입하도록 돕고 있다. 학습 프로그램 이외에 튜터링, 문화교육(음악회, 연극, 박물관, 식물원, 대학 견학 등), 또래 영재들과 사귀는 방법과 심리치료 등을 제공한다. 1년의 3회 학부모 교육을 통해, 영재 자녀의 동기 부여, 재능 개발 등에 대한 부모 교육과 함께 컴퓨터 교육을 제공한다. 모간 스탠리, 시

티 그룹, 코카콜라 등 여러 기업으로부터 기부와 지역 학교나 지역 사회로부터의 기금이거나 다른 자원을 제공받고 있다(Olszewski-Kubilius, 2010).

4) 효과

본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 중 고등학교 수학이나 지리 등 AP과정을 마친 학생이 각각 92%, 89%로 일반학생보다 대부분 학습 수준과 능력 면에서 앞서며, 53~67% 학생이 일반 영재교육을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나, 소외 계층의 영재교육에서의 과소대표 현상을 완화시키고 있다(Olszewski-Kubilius & Thomson, 2010).

2. 영국

영국 교육부는 소외계층 학생과 우수한 중상류층 학생간의 격차를 줄이고, 소외계층 학생이 영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 영재교육진흥 프로젝트(National Challenge Gifted and Talented Project)’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소외계층 영재 교육과정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실시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영국식 모형(English Model)이라 불리는 ‘모든 이를 위한 수월성 교육 강화(Excellence for All)’ 정책을 펼치고 있다(이재분외, 2011). 특히 교육격차가 조기에 발생함으로 2006년 유아 초기의 중요성과 아동 돌봄을 강조하는 차일드 케어 법령을 통해 모든 아동이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복지과 교육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Dep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7).

가. Narrowing the Gap (NtG, 격차 해소 프로그램)

1) 목적

Narrowing the Gap은 저소득층, 실업자, 소수인종, 이민자등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낮고 교육적으로 소외된 학생의 영재성과 역량개발 및 사회에 존재하는 계층 간의 교육 격차를 좁히고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자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다(이재분외, 2011).

2) 선발 대상 및 방법

가난한 소수 인종, 보호 대상자, 실업 가정, 무료급식 학생 중 학업 성취는 낮지만, 잠재된 역량과 영재성을 보이는 학생을 선발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프로그램 내용

일대일 교수, 독서훈련 같은 중재 프로그램, 향상계획 프로그램,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우수학습 프로그램 공유,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학업 강화 프로그램, 리더십 고취 프로그램, 주인의식 및 자긍심 고취 프로그램, 멘토링, 대학 탐방, 학부모 역할 강조 프로그램, 6주 학습 목표 달성 프로그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기적 평가와 정기 점검을 통해 학습격차가

줄어들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이나 집시처럼 단기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위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간의 격차를 좁히고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학교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해 우수 학교의 정보나 우수 교사의 교수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Cambridgeshire County Council, 2014).

4) 효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외계층 영재의 학업 성취도가 상승하였으며, 인지 능력 뿐 만 아니라 건강, 신체조건, 사회·정서적 태도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졌다 (Springate, Atkinson, Straw, Lamont, & Grayson, 2008).

3. 독일

독일은 통일 이후 이민자 및 경제적 빈곤층이 급증하고, 학력이 높은 학부모의 자녀와 노동자 자녀간의 대학 진학률의 큰 차이, 영재교육에서 소외계층 학생의 적은 수 등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이재분외, 2011).

가. Wissen Oder Was (WOW: “지식 아니면 무엇” 프로젝트)

1) 목적

소외계층 영재의 흥미와 재능을 지원하며, 능력 개발을 통해 소외계층 및 이주가정 영재의 미래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한다. 로타 & 잉그리드 험스호른 재단과 함부르크 주 정부 교사교육과 학교 개발 연구소가 협력하여 진행한 프로그램이다(이재분외, 2011).

2) 선발대상 및 방법

함부르크주의 소외계층 밀집지역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영재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교사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모가 신청할 수도 있다.

3) 프로그램 내용

함부르크 주 정부 교사교육과 학교개발 연구소 영재교육 상담 기관이 영재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립학교에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정규교육과정의 내용과 주제를 심화하여, 자연과학과 기술관련 능력, 의사소통 능력, 언어 능력, 사회·수학 능력, 공간 능력, 미술, 연극, 음악관련 능력 향상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대학에서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졸업자가 주 2회 4시간씩 학교에서 학생들의 동기부여, 동질감 조성, 진로 교육 등을 내용으로 멘토링을 한다.

나. FAIR TALENT(공평한 재능 계발)

1) 목적

소외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교육기회제공을 통해 사회 상부로의 계층 이동이 가능하며 공

동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톨란드 베르거재단이 주관하고 도이치 은행이 후원하고 있다. 현재 500명의 학생이 교육 지원을 받고 있다.

2) 선발대상 및 방법

헤센, 작센, 튀링엔 주에서 있는 6세~19세의 영재학생 중에서 영재교육과 같은 특별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선발한다. 심사 과정은 2단계로 되어 있다. 1차는 3인으로 구성된 지역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차에서는 2인으로 구성된 중앙 심사를 통해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한다. 중앙 심사위원은 경제, 학문, 교회, 정치, 교육, 예술관련 종사자들로 지원자를 개별 면담한 후 선정한다(이재분외, 2011).

3) 프로그램 내용

12개의 학생 지원 모듈을 만들어 학생의 개별 장점과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12개의 모듈 내용은 학생 대상의 과목별 개인수업, 예외와 관계에 관련된 세미나, 동료집단 네트워크, ICT 교육, 음악·미술을 통한 창의력 학습, 실습, 방학아카데미, 특별 주제 아카데미, 멘토링, 인성 개발이며 학부모 교육과 재정 지원이 여기에 추가된다. 인지 능력 개발 이외에 정서와 사회성 개발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Deutsche Bank, 2015). 멘토링은 핵심 프로그램으로 학교, 가정, 재단과 영재 간의 중개자 역할을 하며, 영재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호주

호주는 원주민이 유아 교육을 받는 기회가 적어 어릴 적부터 문해력과 수 이해에서 백인 학생과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Cooper, 2005). 인종 간 교육 격차의 고리를 단절하고자 Best Start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주민 학생 중에서 영재 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의 문화와 언어의 특성을 고려한 교사용 관찰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박지은 외, 2012). 호주 원주민의 경우 언어 지능, 관찰을 통한 공간지능, 대인관계 지능, 자연탐구 지능과 영적 지능을 영재성으로 보고 있어, 논리나 수학 지능만을 강조하는 전통 영재 선발 검사에서는 이들의 발굴이 어렵다(Bevan-Brown, 2011).

가. Best Start 내의 영재교육 프로그램

1) 목적

Best Start는 ‘빈곤의 순환을 끊고, 밝은 미래를 만든다.’ 라는 모토 하에 2001년부터 호주의 빅토리아 주정부에서 시작한 빈곤층 아동 및 가족 대상 교육복지 프로그램이다. 소득, 인종, 주거 지역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른 영유아 간의 인지, 신체 발달, 보건, 복지에서의 격차를 조기에 개입하여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Victor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05). Best Start는 참여하는 학생 중 영재를 대상으로 하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 선발 대상 및 방법

Best Start는 0세부터 8세까지의 원주민 자녀, 이민 가정 자녀, 장애아, 경제적 빈곤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Best Start 학생 중 Best Start 언어능력과 수학능력 평가 검사를 사용하여 평가 영역에서 1단계 수준을 상회하는 학생들을 영재교육 대상자로 선발한다(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Communities, 2011).

3) 프로그램 내용

Best Start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영재 평가 검사와 학생의 장점을 바탕으로 11개의 프로그램(과학·기술, 건강, 곱셈과 나눗셈, 환경보호, 공룡, 농지 경작, 약물교육, 세계의 어린이, 그림자, 광고(문학), 날씨)을 개발하였다. 다양한 사고를 목표로 하며, 내용, 과정, 산출물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Maker의 모형을 기초로 한다(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04).

4) 효과

소외계층 대상의 보편적 교육복지 프로그램 안에서 영재를 선발하여 교육함으로써 영재 교육과 복지의 통합, 정규교육 속에서 영재교육을 실시를 통해 형평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중심으로, 6개 부처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건, 복지, 교육서비스는 물론, 스포츠, 취미, 도서관, 교통수단 등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지원함으로써 가능하였다(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1).

나. Moorditj Kulungar (‘똑똑한 아이들’ 프로그램)

1) 목적

1998년 후반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호주의 원주민 영재를 선발하여 자존감 향상, 기술 증진,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 강화, 학습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Cooper, 2005).

2) 선발대상 및 방법

서 호주 도시지역에 사는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1학년 원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다양한 선발 도구를 사용한다. 서 호주 교육부(TAGS)는 교사추천 체크리스트, 학부모 추천서, 동료 추천서와 레이븐 지능검사 같은 문화 중립적이며, 비언어적 도구를 사용하며(McCann, 2005), 심사자는 원주민 문화에 대해 잘 아는 원주민 교육공무원, 교육과정 공무원, 학교 상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3) 프로그램 내용

‘원주민과 영재의 과거, 현재, 미래로의 여행’이란 개발된 프로그램은 학생의 자아개념, 역사, 문화를 내용으로 하며, 두 학기 동안 진행된다.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롤 모델 되는 명

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특히 멘토는 원주민 사회에서 선정한다. 원주민 영재 선발을 위한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Cooper, 2005).

5.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 종교, 인종 등이 섞여 있다. 전체 이주 인구의 85%가 중앙 유럽과 미국에서, 15%는 중동아시아(12%)와 아프리카(3%)에서 이주하였다. 유럽에서 온 주류 집권 문화와 중동 이주 유대인 문화 간의 대립이 있으며(Shoshana, 2012), 이런 대립은 교육에서도 유대인 시스템과 팔레스타인-아랍 시스템으로 양분되며 교육 격차도 크게 벌어져 있다(김경희·곽창선, 2014; Coursen-Neff, 2004).

가. Fostering Projects for the Gifted Disadvantaged

1) 목적

1961년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적,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여 아동의 잠재능력을 육성하고 이스라엘의 교육체계에 동화되며 학업적 성취를 통해 이스라엘에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간 기숙학교 프로그램이다.

2) 선발대상 및 방법

중동 아시아나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빈곤, 이혼,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정의 자녀로 가정을 떠나 기숙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아동을 선발한다(Eliezer, 1983). MILTA(이스라엘 언어 능력 표준화 검사)와 Seker(이스라엘 국가 학업 성취도 검사)를 사용하여 선발한다(Smilansky & Nevo, 1971).

3) 프로그램 내용

학문, 기술, 농업, 해양을 학습 내용으로 하며, 강도 높은 심화 교육 및 상담 활동을 제공한다. 또한 다문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4) 효과

이 프로그램 출신 학생은 프로그램 비 참여자보다 대학 중도 탈락율이 낮으며, 대학 입학률이나 대학원 진학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liezer, 1983; Shumueli, 1983). 다문화 교육과정은 학생간의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며, 상호 수용하도록 하였지만(Ichilov & Shacham, 1984), 개인의 정체성에서는 유대인 동화주의의 영향을 받아 참여 학생들이 정체성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hoshana, 2011).

나. AMUTA Jerusalem School of Physics and Mathematics

1) 목적

1980년대 후반 이주한 러시아계 유대인 이주민 자녀 중 영재를 선발하여 이들이 이스라엘 교육체계에 적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러시아 학생들의 개인 문제 해결 및 단순한 언어 습득이외에도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러시아 어린이나 청소년이 결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스라엘 태생 러시아인과 중도 입국한 러시아인간의 화합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2) 선발 대상 및 방법

4살에서 18세의 러시아계 유대인 이주민 자녀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3) 프로그램 내용

히브리어 사용 교사와 러시아어 사용 교사가 팀 티칭하며, 이스라엘의 문화, 역사는 히브리어로, 기술과 자연 과학내용은 러시아로 학습하여 히브리어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기술적인 내용은 자신이 익숙한 언어로 배우도록 한다. 구체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보다는 창의성을 중시하며, 비고츠키, 브루너, 펠스타인의 이론을 교수 모형으로 한다. 수학, 물리, 생물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있다. 저학년은 모의실험 설계를 고학년 학생들과 함께 수행하며, 고학년인 경우 과학적 개념에 대한 복잡한 과제 실험 설계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Jewish virtual library, 2015).

다. Discovery program

1) 목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문화 및 교육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영재성과 리더십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이스라엘 예술 과학 고등학교 지원 후보군을 모집하기 위해서 1988년부터 이스라엘 예술과학 고등학교가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2) 선발 대상 및 방법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중학교 1~3학년 학생 중 평균 이상의 잠재능력을 가진 학생으로 유대인, 아랍-기독교인, 드루즈, 베두인이 있는 26개 지역에서 교사 추천, 표준화 검사, 학업 성취도 및 학생 성취를 보여주는 유사 검사를 사용하여 선발하며, 중학교 1학년에 선발되면 중학교 3학년까지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

3) 프로그램 내용

수업은 강의, 사고 기술, 주제 연구의 3가지 유형으로, 매주 한 시간 반씩 하는 2개의 강의가 있고, 수학적 사고기술과 물리·화학·생물·기술영역에서 다양한 주제 연구가 있다. 과학

은 와이즈만 연구소와 이스라엘 예술과학 고등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과학 프로그램 중에서는 직접 실험을 하거나 개념이나 원리를 배운다. 미술과 음악에 대한 5~7개 특별활동이 있으며, 박물관, 미술 전시회, 연주회 등을 방문하는 2일 집중 활동이 있다. 체험 학습의 경우 다른 지역의 디스커버리 프로그램 참여자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예술가, 저자, 음악가등과의 만남, 연극 연출가, 영화감독과의 만남, 창의성 워크숍, 이스라엘에 유행하는 다른 문화 관람 등 가정에서 제공할 수 없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Jewish virtual library, 2015).

4) 효과

지역에 있는 교실, 일반 교사, 교육과정과 같은 제반 시설과 자원을 활용하여 낙후된 지역 안에서도 개인, 가정, 교원 및 지역의 희망과 요구를 반영하여 영재성을 계발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스라엘 예술과학 고등학교 입학 기회를 제공받음으로 일반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있는 부유층 학생들과 동일한 경쟁 위치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한다.

6. 종합 비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들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분석한 나라별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외국 14개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비교

나라	프로그램명	대상자		프로그램 특징	선발	RTI	다중 지능	멘토	부모 교육	교사 교육	외부 자원
		특징	학년								
미국	Young Scholar	Title 1학교/ 빈곤층/ 이중언어/장애아	유치원~ 고등학교	개별화/ 차별화	다면검사 (교사관찰, 생활기록부, 작품, 비언어검사)	○			○		
	Project M ² Mentoring Young Mathematics	빈곤층	유치원~ 초등2	일반영재 프로그램 전환/도형 측정6개 모듈/ 차별화	선발단계 없음	○					
	SYNERGY	흑인 빈곤층	유치원	다문화교 육/차별화 교육과정/ 일반영재 프로그램 전환	3단계 (전통검사 → 역동적평가 →수행평가)		○	○			
	Project START	빈곤층/ 다문화	유치~ 초3	차별화 교육과정	다중지능 체크리스트, ITBS, 수행과제		○	○	○	○	

나라	프로그램명	대상자		프로그램 특징	선발	RTI	다중 지능	멘토	부모 교육	교사 교육	외부 자원
		특징	학년								
	DISCOVER	다문화	유치 원~ 고등 학교	다중지능 에 입각한 간학문	5단계 문제 유형	○	○				
	Project EXCITE	빈곤층 혹인	초3~ 중3	일반 영재프로 그램으로 의 전환	전통적성취 도검사, 교사추천, 학부모추천, NNAT				○		○
영국	Narrowing the gap(NtG)	빈곤층/ 다문화	0~5세	학교, 교사지원/ 차별화교 육과정/ 보육과 교육 통합	알 수 없음	○			○	○	
독일	WOW	빈곤층/ 이주 학생		정규교육 과정연계 된 심화	교사추천, 부모추천		○	○			○
	FAIR TALENT	빈곤층	6~19 세	12개 모듈	추천과 면접			○	○		○
호주	Best Start	빈곤층/ 다문화	0~8세	보육과 교육통합/ 부처 간 협력	Best Start 영재평가 검사(언어, 수학)				○	○	
	Moordif Kulungar	호주 원주민	초6~ 고1	문화에 대한 2학기 압축교육 과정	교사 추천, 부모 추천, 동료 추천, 레이븐 지능검사					○	
이스 라엘	Fostering Projects for the Gifted Disadvantaged	중동, 아프리카 빈곤가정 학생		기숙학교 프로그램/ 학문, 기술, 농업, 해양	MILTA (언어)/ Seker (학업성취)	○					
	AMUTA Jerusalem school of Physics and Mathematics	러시아 계 유대인	4~18 세	러시아 유대인 교원 활용,	알 수 없음			○			
	Discovery Project	빈곤층	중1~3	지역의 교원과 교실활용/ 이스라엘 예술과학 고등학교 입학기회 제공	교사추천/ 표준화 검사/ 학업성취도						

미국은 중단되었던 Javits 연구 지원이 2014년부터 소외계층 영재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재개되어 소외계층 영재에 대해 정책적으로 큰 비중을 두고 있다. 80년대와 90년대에 연구 개발된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학생이 일반 영재교육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가교적 성격과 다중 지능이론에 입각한 다면적인 선발 방법 개발이 특징이었다. 최근 3년간의 연구 프로그램은 기존의 개발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며, 소외계층 영재를 먼저 선별하기보다 소외계층 영재를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을 제공하면서 그 속에서 영재를 선별하는 다층적 단계를 가진 중재반응(RTI) 모형이 확장 사용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월성 중심의 선발보다는 학생의 강점과 필요에 맞는 차별화 교육과정제공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영재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형평성 정책 강화의 영향이기도 하다.

영국은 형평성과 수월성의 동시 추구를 목표로 하는 영국식 모형으로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정책과 함께, 교육이 복지와 함께 실행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가 교육과 보육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조기에 개입하여 사회 격차를 좁혀, 영재교육에서도 보육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소외계층 영재교육의 특징은 원주민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과정에 들어 있는 영재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의 결핍 환경에 조기 개입함으로써 영재교육의 보편적 실시 및 복지와 교육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소외계층 학생 중 영재를 자연스럽게 관찰, 선발하여 교육하도록 한다.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 교육은 복지와 함께 실행되어, 인 지적 필요 뿐 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필요에 대한 보육 지원이 함께 제공되고 있다.

독일의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국가 지원이외에 지역사회나 기업 등 외부의 다양한 인적·물리적 자원을 활용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장학금,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스라엘은 소외영재를 위한 기숙 프로그램과 이스라엘 예술과학영재학교 입학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숙 프로그램 형태는 교육과 복지의 통합보다 더 한층 강화된 형태로 학생의 모든 발달과 생활까지 교육기관이 책임을 진다. 또한 이스라엘 예술과학영재학교 입학 기회는 계층 간 이동 가능성을 제공하며, 지역 격차 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계층 영재라는 라벨에서 벗어나 일반 영재와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나라의 프로그램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정규수업 속에서 영재교육과정의 활용, 다중지능이론을 바탕으로 다면적 비전통적 선발 방법과 학생 개별에 맞는 차별화 교육과정제공 및 효과성이 높은 부모 교육과 멘토링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한번 선발된 학생은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공통점이다. 소외계층 학생은 선발도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안에 있어야,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 지속성도 프로그램 운영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 재능대학교 영재교육원(초2~3 대상), 대전 소외계층 영재학급(초6, 중3 대상), 충북 꿈나무 교실(초6 대상),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Outreach(중2 대상), 서울대학교 삼성 꿈 배움터(중1~3 대상), 관악구 물리교실(초6 대상)등에서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프

로그래미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 대상으로, 경인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선문대학교, 용인대학교, 전북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17개 대학에서 수학·과학, 글로벌 리더십, 언어, 예술·체육 영역에서 다문화 영재를 위한 글로벌 브릿지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추후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외계층 및 다문화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및 프로그램 비교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III. 결론 및 제언

소외계층 영재교육과정은 교육과 복지를 통합한 전인적 발달을 위한 지원을 포함하며, 학생 자신의 강점 영역에서 성공을 경험하며 인지적 능력 뿐 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 능력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외계층 영재교육과정은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주변인의 상태의 소외계층 영재가 주도성을 가진 보이는 주체자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며,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상부로의 계층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고착화된 계층 구조를 약화시키며 계층 간 격차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교육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장래 직업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소외계층 영재교육과정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자아실현과 성공 경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계층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제2차,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며, 한국형 헤드스타트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외국의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분석과 비교를 통해 한국형 헤드 스타트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영재와 일반 영재간의 격차가 크지 않고, 회복력이 강한 어린 시기에 조기 개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정규 수업 시간에 운영되는 영재교육과정의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소외계층 영재는 잠재능력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 선별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잠재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규 수업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사고 기술, 다양한 영역 탐색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수업 과정 속에서 영재를 선발하여 다층적(Tiered)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재반응(RTI) 모형을 근간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Blanco, 2014).

둘째 형평성과 수월성의 동시 추구이다. 영재교육은 수월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수만이 영재교육 접근기회를 가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지만 Young Scholar, DISCOVER, Project M²처럼 소외계층 영재수업이 정규 교육과정과 분리되지 않고, 정규수업에 확대된(school wide) 학교 심화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접근기회가 동일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 사고력, 창의성, 협력학습 능력, 감정조절, 동기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질의 영재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에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중심으로 영재성을 발현하게 되어 형평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

셋째, 논리, 언어, 분석 중심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의 능력과 강점중심으로 선발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외국의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전통적 검사 대신 학부모 추천, 교사 추천, 포트폴리오, 역동적 평가(Borland & Wright, 1994; Kirschenbaum, 1998), 성취기반 평가(VanTassel-Baska, Johnson, & Avery, 2002), 수행 평가, 비언어 검사(Bracken & McCallum, 1998; Naglieri & Kaufman, 2001)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다. Project Synergy의 경우 검사 점수들의 평균보다는 최고점이나 높은 점수를 받은 영역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였다. 현장에서는 소외계층 학생 중에서는 영재가 없으며, 이들은 영재로 선발되기에는 언어, 논리, 분석력 등이 뒤쳐져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학생의 약점 대신 강점을 그리고 잠재능력을 중시하며, 다중지능이론에 입각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선발방법을 사용하여 문화에 따라 중시하는 영재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면, 소외계층 학생 속에서도 영재를 충분히 발굴할 수 있다. 또한 발굴된 학생이 중도 탈락하지 않고 일반 영재와 같은 수준의 진학이나 진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정책 및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이재분 외, 2011; Moore, Ford, & Milner, 2005).

넷째,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영재가 정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다.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목표는 잠재능력 계발과 교육경험을 통해 일반 영재와의 격차를 좁히며, 일반 영재와 겨룰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수준으로 소외계층 영재학생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다(Borland, 1994). Project Synergy나 Project EXCITE처럼 소외계층 영재가 정규교육과정에 잘 적응하여 초등학교부터 고등교육기관에까지 탁월한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며, 소외 계층만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에서 일반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영재학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섯째, 반복 연습이 아닌 속진과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 같은 고차원적 사고를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영재의 특성은 빠른 학습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깊고 복잡한 사고를 선호한다. 소외계층 영재도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학습 속도에 맞추며, 속진을 통해 일반 영재와의 학력 격차, 결손 내용을 보충하고 일반 영재의 수준에까지 나아가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Horn, 2015).

여섯째, 인지적 프로그램이외에 자신감, 내적 동기화, 대인관계 능력 등 사회-정서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과 무관심, 가정 내 문제 등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소외계층 영재는 기초생활교육이 결여되어 있거나, 자신감이 부족하고 학업 성취에 대한 내적 동기화가 안 되어 미성취나 학습 부진상태에 있기 쉽다. 따라서 기초생활 교육, 사회화 교육과 함께 자기 동기화, 자신감, 리더십, 창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송경애, 2014). 또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이나 자신이 속한 지역의 부정적 신념을 극복하고, 학업 성취와 사회 상부로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 내적 신념과 중상류층 학생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Olszewsk-Kubilius & Thomson, 2010).

일곱째, 멘토 및 지역사회자원 활용이다. Project Synergy나 START는 멘토의 효과성을 보여 주었고 이스라엘의 Discovery program은 지역 공동체의 지지 및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자신을 격려하고 이해해 주는 멘토의 지원은 자신감과 동기 부여, 사회적 지지에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 독일의 WoW나 Fair Talent처럼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 제공을 위해 개인이나 공익 기업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여덟째, 부모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다. 소외계층 영재의 학부모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녀 양육에 관심이 낮으며, 다문화 가정 영재의 학부모는 언어와 영재양육에 대한 정보 부재로 자녀들이 영재교육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Coleman & Southern, 2006). 영재 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자녀에게 학업성취 동기 부여 방법, 자녀의 강점 강화 및 약점 보완, 영재자녀 양육 방법, 학업이나 진로에서의 성취를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내용으로 하는 부모교육을 제공해야 한다(조성민·전동렬, 2012).

아홉째, 경제적 빈곤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영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사연수 프로그램 제공이다. 소외계층 영재는 일반 영재와 달리 잠재능력이 발현되지 않은 미성취 상태인 경우가 많다. 영재로 선발되는 대신 오히려 학습 부진, 산만, 불만이나 적대적인 사회 정서적 문제야로 낙인 되어 강점보다 약점이 부각되고 있다. 교사는 소외계층 학생을 영재로 덜 추천하는 경향이 있어(Harradine, Coleman, & Winn, 2014) 소외계층 학생 중에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외계층 영재의 특성을 이해하며 이들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일반 교원과 영재 교원의 협력, 학교 기관장의 관심,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Young Scholar처럼 소외계층 영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층적(Tiered)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관리자의 결단이 필요하며, 이 프로그램이 효과를 이루려면 각 단계에서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고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일반 교원과 영재 교원간의 협력이 전제된다. 또한 소외계층 영재교육은 교육과 복지가 함께 병행되어야 함으로 교육부, 여성 가족부, 보건 복지부등 정부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3). **제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제2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 김경희, 광창선 (2014). 이스라엘 영재교육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교원교육연구**, 31(1), 243-265.
- 김미숙, 강병직, 김영아, 김인순, 박지은, 서예원, 유경재, 이희현, 전경남 (2009). **한국의 영재교육: 영재교육 현황과 국가표준 정립**. CRM 2010-109. 서울: 교육개발원.
- 김미숙, 서지연, 김영아, 이희현, 전정민, 한은주 (2009). **소외계층 영재교육 프로젝트 S&S (Stand and Shine): 선발도구와 프로그램 개발**. CRM 2009-29. 서울: 한국교육개발

- 원.
- 박지은, 이경숙, 정영옥, 서나래, 채현정 (2012). **해외관찰·추천도구 안내서**. CRM 2012-17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송경애 (2014). 소외계층 영재의 지능과 자아존중감, 수학적 태도 및 과학적 태도의 관계. **영재교육연구**, 24(6), 1039-1051.
- 여성가족부 (2014). 다문화 학생 통계 현황 (14. 4월) 안내. <http://www.moe.go.kr/web/100068/ko/board/view.do?bbsId=343&boardSeq=57128&mode=view> (검색일: 2015. 4. 6).
- 이재분, 유경재, 여승수 (2011). **소외계층 영재학생 사례 발굴 및 지원 방안 연구**. CR 2011-7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조성민, 전동렬 (2012).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과학 영재의 학습 특성과 전술: 주말 물리교실 하늘이의 사례를 중심으로. **영재교육연구**, 22(3), 729-755.
- 한국교육개발원 (2015). 2014 통계연보 from <https://ged.kedi.re.kr/stss/viewStatistic.do> (검색일: 2015. 4. 27).
- Antoniades, C. B. (2014, April 11). Fairfax program seeks to close the 'excellence gap'. Washington Post. Retrieved May 7, 2015, from http://www.washingtonpost.com/lifestyle/magazine/fairfax-program-seeks-to-close-the-excellence-gap/2014/04/10/21711a80-a2f0-11e3-84d4-e59b1709222c_story.html
- Bevan-Brown, J. (2011). Indigenous conception of giftedness. In W. Vialle, (Eds.), Giftedness from an indigenous perspective. Retrieved from March 23, 2015, from <http://www.aaegt.net.au/DEEWR%20Books/02%20Indig.pdf>
- Blanco, M. (2014). Strength-Based RTI. *Gifted Child Today*, 37(3), 169-176.
- Borland, J. H., & Wright, L. (1994). Identifying young, potentially gifted, 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38, 64-171.
- Borland, J. H. (2004). Issues and practices in the identification and education of gifted students from underrepresented groups. RM 04186. Retrieved April 6, 2015, from <http://www.gifted.uconn.edu/nrcgt/reports/rm04186/rm04186.pdf>
- Bracken, B. A., & McCallum, R. S. (1998). *Examiner's manual: Universal Nonverbal Intelligence Test (UNIT)*. Itasca, IL: Riverside.
- Callahan, C. M., Tomlinson, C. A., Moon, T. R., Tomchin, E. M., & Plucker, J. A. (1995). *Project START: Using a multiple intelligences model in identifying and promoting talent in high-risk students*. (Research Monograph 95136). Storrs: University of Connecticut, The National Research Center on the Gifted and Talented.
- Cambridgeshire County council (2014). Narrowing the gap 2012-2014. Retrieved April 15, 2015, from www.cambridgeshire.gov.uk
- Coleman, L. J., & Southern, W. T. (2006). Bring the potential of underserved children to the threshold of talent development. *Gifted Child Today*, 29(3), 35-39.

- Cooper, S. (2005). Gifted indigenous programs: Unmasking potential in minority cultures.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19, 114-125.
- Coursen-Neff, Z. (2004). Discrimination against palestinian arab children in the Israeli educational system.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36, 101-162.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7).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guidance on preventing underachievement: A focus on children and young people in care. Retrieved from March 20, 2015, from <http://www.teachfind.com/national-strategies/gifted-and-talented-education-guidance-preventing-underachievement-%E2%80%93-focus-child>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9). Narrowing the Gaps: Resources to support the achievement of Black and minority ethnic, disadvantaged and gifted and talented pupils. Retrieved April 15, 2015, from <https://www.essex.gov.uk/Business-Partners/Partners/Schools/One-to-one-tuition/Documents/narrowing%20the%20gap%20ethnic%20minority.pdf>
- Deutsche Bank (2015, April 15). The Germany National Scholarship program creates opportunities. Retrieved May 14, 2015, from <https://www.db.com/cr/en/concrete-the-german-national-scholarship.htm?dbquery=null%3Aacquires>
- Eliezer, S. (1983). The gifted disadvantaged of Israel. ED242852. Retrieved March 23, 2015, from <http://eric.ed.gov/?id=ED242852>
- Ford, D. Y., & Harris III, J. J. (1996). Cultural Diversity: Challenges for gifted education: Recruiting and retaining diverse students in gifted education: Pitfalls and promises. *Tempo*, 16(2), 6-12
- Gavin, M. K., & Casa, T. M. (2012). Nurturing young student mathematicians.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29(2), 1-14.
- Gavin, M. K., Casa, T. M., Firmender, J. M., & Carroll, S. R. (2013). The impact of advanced geometry and measurement curriculum units on the mathematics achievement of first-grade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57(2), 71-84.
- Gross, M. U. M.(1999). Inequity in equity: The paradox of gifted education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43(1), 87-93.
- Harradine, C. C., Coleman, M. R. B., & Winn, D. C. (2014). Recognizing academic potential in students of color: Findings of U-STARS~PLUS. *Gifted Child Quarterly*, 58(1), 1-11.
- Horn, C. V. (2015). Young scholars. *Gifted Child Today*, 38(1), 19-31.
- Ichilov, O., & Shacham, M. (1984). Interethnic contacts with gifted disadvantaged students: Effects on ethnic attitudes. *Urban Education*, 19(3), 187-200.
- Jewish virtual library (2015). Learning together: Chapter III- Programs for the gifted, talented & very able. Retrieved April 20, 2015, from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Learning/three.html>

- Kendall Hunt Publishing Company (2015). Project M²: Mentoring Young Mathematicians. Retrieved May 7, 2015, from <https://www.kendallhunt.com/m2/>
- Kirschenbaum, R. J. (1998). Dynamic assessment and its use with underserved gifted and talented populations. *Gifted Child Quarterly*, 42, 140-147.
- Maker, C. J. (2005). The DISCOVER Project: *Improving assessment and curriculum for diverse gifted learners*. RM05206. Storrs, CT: NRCGT.
- Manning, S. (2005). Young leaders: Growing through mentoring. *Gifted Child Today*, 28(1), 14-19.
- McCann, M. (2005). Our greatest natural resource: Gifted education in Australia.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19, 90-100.
- Moon, T. R., & Callahan, C. M. (2001). Curricular modifications, family outreach and a mentoring program: Impacts on achievement and gifted identification in high-risk primary student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4(4), 305-321
- Moore, J. L. III, Ford, D. Y., & Milner, H. R. (2005). Recruitment is not enough : Retaining African American students in gifted education. *Gifted Child Quarterly*, 49(1), 51-67.
- Naglieri, J. A., & Kaufman, J. C. (2001). Understanding intelligence, giftedness and creativity using the pass theory. *Roeper Review*, 23(3), 151-156.
- National Association Gifted Children(2014). Talent Act. Retrieved Mar. 3, 2015 from www.nage.org/print/391
- 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04). Policy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the education of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Retrieved April 20, 2015, from <http://www.curriculumsupport.education.nsw.gov.au/policies/gats/assets/pdf/polsuppcd.pdf#page=18>
- NSW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2011). Case studies. Retrieved April 20, 2015, from <http://www.curriculumsupport.education.nsw.gov.au/beststart/information/index.htm>
- Olszewsk-Kublius, P., Lee, S., Ngoi, M., & Ngoi, D. (2004). Addressing the achievement gap between minority and nonminority children by increasing access to gifted programs.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28(2), 127-158.
- Olszewsk-Kublius, P. (2010). Working with academically gifted students in urban settings issues and lessons learned. In J. L. VanTassel-Baska (Eds.), *Patterns and profiles of promising learners from poverty* (pp. 85-106). Waco, TX: PRUFROCK.
- Olszewsk-Kublius, P., & Thomson, D. L. (2010). Gifted programming for poor or minority urban students: Issues and lessons learned. *Gifted Child Today*, 33(4), 58-63.
- Olszewsk-Kublius, P., & Clarenbach, J. (2012). *Unlocking emergent talent: Supporting high achievement of low income, high ability student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 Sarouphim, K. M. (1999). DISCOVER: A promising alternative assessment for the identification of gifted minorities. *Gifted Child Quarterly*, 43(4), 244-251.
- Shoshana, A. (2011). When the hybrid met the therapeutic: Discursive orders in every day life. *Anthropological Theory*, 11(2), 153-176.
- Shumueli, E. (1983). *The gifted disadvantaged of Israel. Manila conference on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242852)
- Smilansky, M., & Nevo, D. (1971). *Secondary boarding schools for gifted students from culturally disadvantaged student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054239). Retrieved May 4, 2015, from <http://files.eric.ed.gov/fulltext/ED054239.pdf>
- Springate, I., Atkinson, M., Straw, S., Lamont, E., & Grayson, H. (2008). *Narrowing the gap in outcomes: Early years(0-5 years)*. Slough: NFER.
- UCONN. (2015). Project M². Retrieved May 14, 2015, from <http://projectm2.uconn.edu/team.html>
- US Department of Education (2015). Jacob K. Javits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education project abstracts. Retrieved April 22, 2015, from <http://findit.ed.gov/search?utf8=%E2%9C%93&affiliate=ed.gov&query=javits>
- VanTassel-Baska, J., Johnson, D., & Avery, L. D. (2002). Using performance tasks in the identification of economically disadvantaged and minority gifted learners: Findings from Project STAR. *Gifted Child Quarterly*, 46, 110-123.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Gifted Programs Abroad f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or Minority Students: The Cases of US, UK, Germany, Australia, and Israel

Shin-Dong Lee

Soonchunhyang University

Kyung-Sook Lee

Soonchunhyang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14 programs for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or minority students with potentials in 5 countries - US, UK, Germany, Australia, and Israel, attempting contents and characters of Korean Head Start to be developed, that is the program f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gifted students or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ho are gifted at risk of under-representation and under-achievement. School wide enrichment programs, which served all students with gifted programs, using RTI model in the pursuit of equity and excellence, turned out to be effective as early interventions and identification implemented f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or minority students with potentials. Gifted programs for low Social Economic Status (SES) or minority students played a role as a bridge for disadvantaged students to get into a regular gifted program or even higher gifted schools and to have a competency to compete with affluent gifted students. The principles of the programs were acceleration and differentiation. Most programs also ran a parents' education and a mentor program to motivate and support disadvantaged students socially and emotionally.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al offices and usage of external resources were more effective to support these students and the programs.

Key Words: 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s,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Education gap, RTI model, Under-representation

1차 원고접수: 2015년 6월 3일
수정원고접수: 2015년 7월 5일
최종게재결정: 2015년 7월 5일